

보도일시 | 2024년 9월 24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생포의 꿈! 울산의 희망!’ 2024 울산고래축제 개최

-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서 나흘간 열려 -

- 홀로그램·LED·레이저 빔 융합 화려한 무대, 야간퍼레이드 등 다양한 볼거리 풍성 -
- 페스티벌 송·축제 다큐멘터리 제작까지, 새로운 시도로 축제 콘텐츠 강화 -

울산을 대표하는 ‘울산고래축제’가 오는 26일 개막한다.

‘장생포의 꿈! 울산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나흘간 열리는 ‘2024 울산고래축제’는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펼쳐진다.

국내 유일의 고래 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울산고래축제는 ‘화합, 행복, 우정, 희망’이라는 고래의 상징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펼쳐진다.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울산고래축제는 페스티벌 송과 축제에 활용하기 위해 장생포를 배경으로 한 단편영화와 축제 다큐멘터리 등 미디어 콘텐츠를 자체 제작했다.

LED와 홀로그램, 레이저 빔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와 야간 퍼레이드 등의 야간콘텐츠를 강화해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장생포의 특별한 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화려한 ‘개막식’은 26일 오후 7시에 장생마당(장생포 다목적구장)에서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남구의 캐릭터 장생이의 미디어 퍼포먼스와 고래 도시의 성장을 다룬 미디어아트에 이어 인기가수 ‘손태진’ 과 ‘김다현’ 의 개막 축하공연과 불꽃 쇼가 펼쳐진다.

축제 이틀째, 27일에는 국내 대표 뮤지컬 배우인 김소현, 이견명, 리사의 ‘뮤지컬 갈라쇼’ 가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간 펼쳐진다.

뮤지컬 캣츠의 ‘Memory’ ,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순간’ 등 많은 사랑을 받는 주옥같은 뮤지컬 명곡들을 감상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야간 퍼레이드’ 와 ‘장생포 디제잉 파티’ 는 축제 사흘째인 28일 오후 8시 만날 수 있다.

장생포 복지문화센터에서 출발해 장생 마당까지 이어지는 진행되는 ‘야간 퍼레이드’ 는 해양경찰 관현악단과 기수단, 플로트카, 댄스동호회, 마칭밴드, 남구 14개 동 주민 등 천여 명이 행렬로 참여하며, 거점 퍼포먼스 구간에서 각 출연 팀이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펼치게 된다.

특히, 축제에선 처음 시도하는 야간 퍼레이드의 특성을 살려 퍼레이드 행렬에 파도 이미지의 영상이 투영되는 미디어 융합 축제의 묘미를 즐길 수 있고, 이러한 퍼레이드의 열기는 ‘장생포 디제잉 파티’ 로 이어진다.

‘디제잉 파티’ 는 DJ 스타로 유명한 클론 출신의 ‘DJ Koo(구준엽)’ 와 ‘DJ 하니니’ 가 대형 미디어를 배경으로 초가을 장생포의 밤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마지막 날인 29일 저녁 7시에 열리는 ‘폐막식’ 에는 고래가요제 시상식과 팬텀싱어 시즌3 우승팀인 라포엠의 폐막 공연이 이어지고, 고래문화재단에서 직접 제작하는 축제 나흘간을 다룬 다큐멘터리 ‘4일간의 행복’ 이 폐막 무대에 올려진다.

밤이 있는 축제를 페스티벌로 꾸몄지만, 낮에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세대별로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테마파크, ‘웨일랜드’는 어린이 방문객들이 좋아하는 회전목마를 비롯한 놀이기구와 간이무대, 푸드트럭과 관람객 쉼터로 구성되고, 매일 한차례 진행되는 어린이 뮤지컬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한 가족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제작된 부루마블 판 위에서 장생포의 역사를 게임으로 알아가는 ‘웨일마블’과 생태체험관 앞 바다에서 진행되는 ‘수상 플라이보드 퍼포먼스’, 치어리더들의 공연 ‘웨일치어’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유명 거리예술가가 모인 다양한 장르의 서커스 공연인 ‘서커스데이’는 코미디와 드라마 등 스토리가 있는 서커스 공연과 방문객이 직접 저글링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서커스 놀이터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다.

전국 공모로 예선을 거치고 올라온 댄스 경연팀의 역동적인 무대,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는 다양한 장르의 댄스 경연을 통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층과 시니어층을 겨냥한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장생포 문화창고 소극장 W에서는 축제 4일간 매일 세 차례 단편영화가 상영된다.

고래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영화 아카데미’와 연계해 제작한 ‘아무도 모른다’와 ‘안녕 첫사랑’ 등 3편을 감상할 수 있고, 29일 오후 4시에는 단편영화를 제작한 김형기 감독이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도 진행한다.

또한 축제장 곳곳에서는 고래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남구 거리음악회’ 공모 선정팀의 ‘소규모 버스킹’이 열리고, 울산지역 시니어 모델의 당당하고 화려한

런웨이는 ‘장생포춘(春)’ 에서 만날 수 있다.

‘우리 동네 명물 내기’ 는 남구 14개 동 주민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배운 한국무용과 벨리댄스, 난타 교실, 스포츠댄스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그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고 마음속의 힐링을 담아낼 공연도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로 유명한 2인조 포크 록 밴드 ‘여행스케치 토크콘서트’ 가 잔잔한 어쿠스틱 음악으로 관객을 만나고, 점심시간에 즐길 수 있는 ‘런치콘서트’ 는 축제 4일간 매일 진행된다.

26일은 ‘팝과 가요’ , 27일은 ‘클래식’ , 28일은 추억의 음악을 노래하는 ‘응답하라 콘서트’ , 29일은 ‘트로트’ 로 취향별 맞춤 공연을 펼쳐, 중년층 관람객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대표 먹거리 부스 ‘장생 식당’ 은 식사하면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식당 내부에 LED 모니터를 설치해 행사장 공연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고,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식기 반납소를 별도로 설치해 식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친환경 대표 축제로 진행한다.

시원한 바다에 인접한 ‘장생 도가’ 는 필리핀, 네팔 단체의 이색적인 공연을 보면서 세계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축제장 곳곳에서 푸드트럭의 음식 맛도 즐길 수 있다.

울산고래축제에서는 방문객 교통편의를 위해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주차장 등 총 7개의 임시주차장에 3천337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관내 총 4개 노선(KTX 울산역, 옥동공영주차장, 문수체육공원, 남구청)과 행사장 순환(일반부두 앞↔경동이앤에스) 셔틀버스를 무료 운영한다.

이런 가운데, 울산의 청년기업 (주)원더플라스틱(김민석 대표)에서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만든 친환경 고래 키링이 스탬프 투어 선물로 제공된다.

서동욱 고래문화재단 이사장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울산고래축제에 많은 시민이 방문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래문화재단 공연예술팀(☎ 052-226-002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9. 20.
